

회 의 록

회의명		2023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일 시		2023. 9. 8.(금) 15:00 ~ 17:00				
장 소		대학본부 별관 1층 CNU Hall				
심의안건		기타안건: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관련 사항				
심의결과		1.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총 26명) : 교원 15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3명, 외부인사 2명, 졸업생 1명 2. 각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 결정 주체: 대학평의원회 3.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일자: 11월 23일				
참석 현 황	참석 대상자	22명	위임 내역	위임장 제출: 2명 최호정, 전득수	참석자	참석자: 20명 강석구, 최인호, 서연주, 노수림, 이왕록, 이병채, 김운용, 김수일, 김 담, 노현주, 조성범, 김태섭, 김지수, 윤난희, 이재훈, 김필형, 최인용, 김채현, 안선민, 이유진
	참석자	22명				
	불참자	0명	불참 내역			
주요 발언내용						
<div>■ (개회 선언 및 성원 보고) 재적위원 22명 중 위임 2명 포함 22명 참석.</div> <div>■ (전차회의록 검토 및 확인) 2023년 제4차 대학평의원회 심의 결과, 수정 없이 원안으로 확정.</div> <div>■ 기타 논의사항</div> <div>○ 의장(○○○):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겠음.</div> <div>○ 교무처장(○○○):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어서 총장선거는 11월 중하순에는 치러져야 함.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총장 공석 상태가 길어져 내년 글로컬 사업 신청에 영향을 줌. 교무처에서 직능단체별 안을 종합하여 중재안을 만들었음. 원활하게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함.</div> <div>○ 교무과장(○○○): 회의 자료에 따라, 기타 안건 제안 설명.</div> <div>○ 의원(○○○): 중재안 자체는 만족스럽지 않음.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하여 타 직능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할 의향이 있음.</div>						

- 의원(○○○): 중재안에서 졸업생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는데, 그 1명을 직능 단체에 주는 것이 맞음.
- 의원(○○○): 이 회의 직전 오전 10시에 직원협의회 이사회에서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였음. 중재안 수용은 부결되었으나, 원활한 선거 진행에 협조하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였음.
- 의원(○○○): 중재안 선에서는 동의할 수 있음.
- 의장(○○○): 직원협의회 이사회 부결에 따라 교무처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조교협의회의 졸업생 1명을 내부 직능단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지?
- 의원(○○○): 17:8, 16:8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졸업생 1명이 추가된다고 해서 영향을 주지 않음.
- 의장(○○○): 그렇다면 졸업생 1명이 아니고, 외부인사 1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의원(○○○): 중요한 사안을 어느 직능단체의 의견으로 비울 때문에 외부인사를 1명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임. 내부 위원 비율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교수회에 묻고자 함.
- 의원(○○○): 다른 학교의 경우, 충북대는 2:1이 넘고, 공주대는 14:8이지만 외부인사 추천권이 교수회에게 있음. 다른 학교들은 최소한 2:1은 됨.
- 의원(○○○):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모든 대학에서 총추위 구성 비율을 변경했음. 개정된 대학을 비교하면 총 5개 대학 중 3개 대학 전북대, 한밭대, 공주대가 2:1이 안됨.
- 의원(○○○): 전북대, 한밭대는 총추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고려 대상이 아님. 충북대는 2:1이 넘고, 외부인사 추천권도 교수회에 있음. 교통대도 그렇고, 공주대는 14:8이지만 외부인사 추천권을 교수회에서 가지고 있음. 선거를 치른 창원대 13:5, 안동대 12:4임. 교수회 안과 교무처 안이 불합리하다고 말하기 어려움.
- 의원(○○○): 총추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 위원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의 평균적인 교원 비율을 봤을 때, 2:1 비율이 적절한 것 같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
- 의원(○○○): 다른 학교의 사례를 보면, 교수가 중심이 되어 총추위를 구성하고 있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중재안을 받아들임.
- 의원(○○○): 총추위 기능 자체가 교수님들이 주축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

총학생회에서 교원 54%를 안을 제시했는데, 굳이 교원 대 비교원으로 나누어 2:1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궁금했었음. 비공식적인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지만, 그에 대한 의견보다 이전까지는 어느 분의 목소리가 크냐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함.

- 의원(○○○): 교무처에서 낸 안은 중재안이 아니라, 의견 제시안임. 오늘 오전 직원협의회 이사회에서 이 자료를 대학평의원회 자료로 쓴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 표명이 있었음.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합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음. 직원협의회, 공무원 노조, 대학 노조 의견이 달라, 직원 의견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함. 총학생회, 교수회는 법적 기구이지만, 직원에 대한 법적 기구는 없어서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다 바뀔. 직원협의회 이사회에서 총학생회 안까지는 수용하기로 함.
- 의장(○○○): 총학생회에서 낸 안은 교원 16명(53%), 직원 5명(17%), 조교 1명(3%), 학생 5명(17%)임. 직원협의회에서는 이 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임. 잠시 정회를 하고, 각자 상의를 한 후에 재논의하는 것을 제안함.
- 의원(○○○): 직원 직능단체가 3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의장님께 안건을 제안했는데, 왜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인지? 공무원 노조, 대학 노조, 직원협의회 한 사람이 두 곳에 투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확실하게 문제해결을 요청함. 직원협의회 의견을 전체 직원의 합의된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 의장(○○○): 회의가 끝난 후에 ○○○ 의원이 안건 제안을 하였고, 직원협의회는 직원을 대표하는 공식 기구가 없고, 직원협의회, 공무원 노조, 대학 노조의 자치 규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 안건으로는 올릴 수 없음.
- 의원(○○○): 동의할 수는 없으나, 받아들이겠음. 3개의 직원 직능단체가 의견이 다르면, 대표 기구가 어디인지? 지금이라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음.
- 의원(○○○): 직원협의회 이사회에 두 개의 노조와 그 외의 구성원까지 포함되어 있음.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 협의가 이뤄진 안이 직원들의 대표 의견임.
- 의원(○○○):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각 직능단체 의견이 통일되지 않더라도 결론을 맺는 것이 중요함.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견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물어보면, 도돌이표가 됨. 어떤 방식

으로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중재안에서 각 직능단체
별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음. 어떻게 100% 만족하는 안을 만들겠느냐?

- 의원(○○○): 총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기능임. 대표자 회의를 따로 해서 합의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여기서 합의되면 즉각 상정해서 처리해야 함. 지난 회의 때도 안건으로 올라왔었으나, 안건이 될 수 없다고 했음.
- 의장(○○○):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5조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주요 사항은 심의 기능으로 되어 있음. 이 심의 사항을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음.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논의부터 하고자 함.
- 의원(○○○): 총추위 구성안 합의를 위해서 계속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의원(○○○): 전체가 다 공감하는 심의안은 만들어질 수 없고,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가 총추위 구성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니, 어떤 식으로든 결정해야 함.
- 의장(○○○): 총 30명에 교원 18명, 직원 5명, 조교 1명, 학생 3명, 외부인사 2명, 졸업생 1명 안을 제안함. 교수회에서 원하는 2:1 비율은 확보하는 것이고, 직원 1명이 추가, 조교협의회에서 얘기한 졸업생 1명을 내부로 들이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함.
- 의원(○○○): 동의할 수 없음. 교원 대 직원 비율이 전북대는 26%, 충북대는 23.5%, 교통대는 26%, 한밭대는 22%, 공주대는 24%임. 제안한 안은 교원 대 직원 비율이 20%도 안됨. 총학생회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직원의 최종 의견임.
- 의장(○○○): 총학생회 안은 학생이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 의견 요청함.
- 의원(○○○): 5명 중에 1명은 다른 직능단체에 양보할 의향이 있음.
- 의원(○○○): 총학생회 안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양보를 제안함.
- 의장(○○○): 투표반영비율과 연동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교무처 의견을 참고해서 각 직능단체별 의견 제시가 필요함.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음.

(정회 후)

- 의장(○○○): 조정을 통해 의장이 제안한 의견은 총 27명에 교원 16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3명, 외부인사 2명, 졸업생 1명임. 투표 반영 비율과 연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

- 의원(○○○): 조교 인원 변동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
- 의원(○○○): 제안한 내용을 수용함.
- 의원(○○○): 교무처 제시한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 교수회에서 주장하는 2:1 비율은 넘지 않는 의견임. 교원 비율이 전체 대비 59%여서 교수회에서 제안한 60~61% 비율과 유사함. 오늘 오전 직원협의회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 의장(○○○): 그렇다면 직원협의회의 대체안이 있는지?
- 의원(○○○): 교무처 중재안은 교원 57%인데, 지금 제시한 안은 교원 59.2%가 되고, 직원의 경우는 14.3%에서 14.8%로 0.5% 증가하는 상황임. 비율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총추위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함. 총추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직전 총추위에서 직원이 많이 동원되었고, 백서 작성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음. 투표 반영 비율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것과 연동하여 총추위 구성 비율을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심으로 구성해야 함.
- 의장(○○○): 오늘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교무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 교무처장(○○○): 규정상으로 보면, 선거가 11월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규정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음. 그렇게 되면 서로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오늘 타협안 최대한 내주기를 부탁함. 교무처에서 제안한 안은 각 직능단체의 양보를 고려해서 수치를 설계하였음. 투표 반영 비율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양보를 안 함. 결단하시기를 부탁함.
- 의장(○○○): 오늘 결정할 수 없다면, 직능단체별로 이사회 등을 통해야 하는지?
-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함. 총 26명에 교원 15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3명, 외부인사 및 졸업생 3명에서 직원, 학생 한, 두 명을 넣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함.
- 의원(○○○): 그 안을 수용할테니, 외부인사를 제1안으로 총장의 독립적인 의사로 10인 이상 추천해서 대학평의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제안함.
- 교무처장(○○○): 실질적으로 선거를 도와줄 10인 이하는 찾을 수 있음.
- 의원(○○○):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함.

(정회 후)

- 의원(○○○): 직원 의원들 간의 약간의 이견이 있었음. 총추위 위원이 아니었는데 동원되어서 고생만 한 직원들이 있어서, 직원들은 총추위 직원 비율에 관심이 많음. 그러한 측면에서 김태섭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 그러나 직원 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안되면 곤란하기에, 이렇게 구성해서 진행하고, 투표 반영 비율을 협의하면서 총추위 위원을 추가해서 더 구성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었으면 함(잠정합의).
- 의장(○○○): 총추위에 별도의 하부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지?
- 의원(○○○): 소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정식 규정과 별개의 문제라서 곤란함.
- 교무처장(○○○): 오늘 이렇게 합의하면 규정 개정을 진행할 것임. 추후 변동된 합의안이 생기면 그것을 반영해서 추가로 규정 개정할 것임.
- 의원(○○○): 최종안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합의해야만 선거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음. 추후 논의할 여지는 있음.
- 의원(○○○): 직전 선거에서 1년 후에 백서가 발간되었음. 결국 교무과 직원이 다 작성했음. 마무리 작업을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제안함.
- 교무과장(○○○): 선거에 공식적인 지원 인력은 직원 1명임. 운영 중에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면 교무과에서 인력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규정 개정을 통해서 총추위의 직원 비율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음.
- 의원(○○○): 오덕성 전 총장선거 때는 총추위 위원장 주재하에 전체적으로 같이 작성하고, 직원은 편집, 제본 등의 일을 맡았음. 그러나 직전 선거에서 교무과 직원 1명이 다 썼음. 총추위가 구성되면 총추위 위원장 주재하에 그 안에서 다 쓰고 교무과 직원은 별도로 편집, 제본 등의 예산 제반 사항만 수행해야 함.
- 의원(○○○): ○○○ 의원이 제안한 외부인사 추천 및 결정방식을 따르겠음.
- 의원(○○○): 현재 여성 교수평의원들이 많지 않아서, 여성 의원의 수를 교원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학생 1명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을 제안함.
- 의원(○○○): 동의함.
- 의원(○○○): 동의함.
- 의원(○○○): 교수회 총회를 열어 심의하는 절차가 추가되어야 함. 이전 선거에서

개정안이 마련되고, 학무회의 심의하기 전에 교수회 총회 심의를 거쳤음.

- 교무과장(○○○): 교무과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가지고 교수회에서 심의하면 됨. 일정이 여의찮아서, 규정심의위원회도 임시로 진행하기로 함.
- 의원(○○○): 21일 학무회의 전에 교수회 총회 하겠음.
- 의장(○○○): 총추위는 총 26명에 교원 15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3명, 외부인사 2명, 졸업생 1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는 제1안인 총장이 추천(5~10명) 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평의원회에서 2인을 결정하는 것으로 선언함.
- 의장(○○○): 각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 주체에 대해 논의하겠음. 1안은 직능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이고, 2안은 기능·역할과 절차상 적합한 총추위임.
- 의원(○○○): 총추위 구성할 때 무작위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2안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임.
- 의원(○○○): 직능단체의 대표성을 볼 때 대학평의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음.
- 의원(○○○): 대학평의원회에서 하는 것에 동의함.
- 의원(○○○): 대학평의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각 직능단체별 TF를 거치고, 4개의 직능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합의한 안에 대해 상정해야 함.
- 의장(○○○): 4개의 단체 대표가 모여서 합의된 내용을 대학평의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총추위·학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으로 하자는 내용임. 투표 반영 비율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함.
- 의장(○○○): 선거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안은 11월 23일이고, 2안은 11월 30일인데, 가능하면 11월 23일로 정하는 것이 어떤지? 이견 없으면 선거일은 11월 23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함.

■ 폐회